

광주 자원회수시설 재공모 관심 폭발

〈쓰레기 소각장〉

최종입지에 1000억 이상 행·재정 지원...29일까지 후보지 접수 현재 2개소 신청...응모 자격·주변지역 지원 범위 등 문의 줄이어

친환경 랜드마크형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 건립 부지 재공모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가연성생활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재공모에 현재 2개소가 신청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하고 있으며, 응모자격과 주변지역 지원범위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응모자격 여부를 묻는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일단 응모자격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1차 공모 때 일부 후보지는 주민동의 관련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기도 했다.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대규모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적으로 법적 지원과 광주시 특별지원을 합하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입지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 자치구에 200억원과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 등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속한 입지 선정에 위해 유치 문의의 마을에서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와 다른 지역 시설견학 등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역 시설견학 프로그램은 마을별 최소 10명

이상을 구성해 광주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른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응모자격과 신청방법, 주변지역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공모안내서를 제작해 자치구와 97개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시설팀장은 "신규 자원회수 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문화·체육·여가공간을 갖춘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29일까지 입지후보지를 모집하는 만큼 후보지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4월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통해 총 6곳의 유치 신청을 받았으나, 일부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적합 의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스마트 범죄예방환경 개선 '가속'

자치경찰위, 행안부 공모 선정...이동식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 드론을 활용한 범죄 예방체계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스마트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일반적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의미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범죄 예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위주의 전통적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치안 드론, 스마트플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전남형 스마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제안했다. 또 드론 순찰 영상의 실시간 연동 및 분석을 위한 중계(통신망)·관제(모니터)·전력 장비를 갖춘 이동식 드론 관제 시스템(차량) 구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결과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동식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재난 취약 장소에 대한 정기·수시 순찰과 신속한 상황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통한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까지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계기로 2022년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 지자체 최우수상(1위)에 선정된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용 체계 개발'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형 스마트 범죄 예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천대·대한항공·전남테크노파크·고흥군과 협업, 치안드론 및 이동식 관제 차량을 활용해 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 서비스를 하는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용 체계를 개발했다.

섬 지역 치안드론 운용 체계는 ▲장시간(2시간)·원거리(10km) 체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 ▲열화상·적외선카메라·스피커·경광등·탑조등을 장착한 치안 드론 ▲LTE 통신망을 통해 이동식 관제차량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센터와 음성·영상을 연동해 순찰업무에 비롯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전국 1위

37개 농가 보유 전체 52%...깨끗한 축산농장은 33%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국내에서 처음 시행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서 전남 37개 농가가 인증을 획득,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선도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우(거세우) 사육농장 중 조기출하,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 평균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해준다.

2023년에 인증받은 한우농가는 전국 71개 농가로 이중 전남이 52%를 차지했다. 시군별로 함평 6곳, 해남 5곳, 영광·무안 각 4곳, 순천·나주·영암 각 3곳, 담양·곡성·장흥·강진 각 2곳, 진도 1곳이

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인증 내용을 표시해 시중에 판매된다. 탄소중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중점 추진한 깨끗한 축산농장도 2140호로 전국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1935호로 전국의 26%를 차지하는 등 모두 전국 1위를 유지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땅끝 해남산 마늘 100%' 오늘 출시

풀무원, 지난해 370t 구매...해남군과 협약 결실

풀무원이 '땅끝 해남산 마늘 100%' 다진마늘 상품을 개발해 4일부터 출시한다.

이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지난해 풀무원과의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100% 해남산 남도종 마늘을 원료로 사용한다. 풀무원은 지난 7월 해남산 마늘 370t 가량을 구입했다. 이는 약 31ha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부족할 시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에 생산되는 다진 마늘은 남도종 마늘의 고유 향과 맛이 뛰어나 다양한 요리에 양념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남도종 마늘은 김치의 풍미

를 살리고 아삭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타 품종보다 탁월해 김장재료로도 안성맞춤이다. 일반마늘보다 알리신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력을 촉진해 면역력 증진,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풀무원의 해남산 다진마늘 출시로 마늘의 소비촉진, 수급안정, 농가소득 증대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등을 개발해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어린이 상상놀이터' 첫 단추 채웠다

올해 국비 5억 확보...중앙공원 2지구내 어린이공간 2027년 개관

이르면 2027년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복합 문화공간이 광주에 들어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 상상 놀이터(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99억원) 가운데 올해 국비 5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린이 상상 놀이터는 광주 중앙공원 2지구 내부지 3만5390㎡, 연면적 4000㎡ 규모로 2027년

개관 예정이다. 공원 내 숲과 어우러진 곳에서 어린이들이 놀이, 체험, 교육,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용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 콘텐츠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992년 중의공원에 있던 어린이 회관이 철거된 뒤 광주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없어 지역민의 요구가 컸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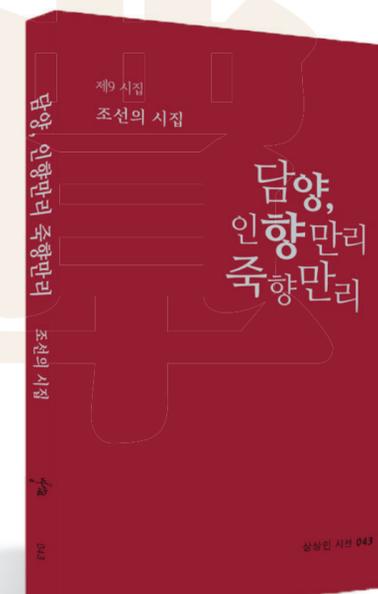
조성 배경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에 집중했으며, 애초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놀이와 체험, 교육, 공연, 교류 공간과 함께 편의시설을 갖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기술과 오감을 자극하는 어린이 놀이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광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미래세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정리 | 정성민
출판 | 문학사상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